

## 패션관련학과의 전공교과과정 현황분석

나수임\* · 권혜숙 · 이정순

상명대학교 의상디자인전공 교수

## Analysis of the Major Curriculum of Fashion-related Courses

Rha, Soo-Im\* · Kwon, Hae-Sook · Lee, Jung- Soon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angmyung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better future-oriented improvements by considering the traits and changes of the curriculum of the courses related to the field of fashion.

To get the best results from the study, out of all the fashion-related majors (courses) from 4-year based universities in Korea, 65 was selected and divided into 24 courses in the category of clothing & textiles, 34 courses in the category of fashion design and 7 courses in the category of fashion industry in 7 universities, and their education goals and contents of the curriculum posted on the internet homepage of each university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with the result from analyzing what the core terms have in common, which are used to express the educational purposes of fashion-related courses in Korea, the ideal type of talents that most of the fashion-related courses tend to pursue can be said to be those who are equipped with a sense of future-oriented creative direction and international communication capability, based on a multidisciplinary general capability, a professional executive ability, an information-analytic ability and an ability of planning, as well as in possession of a sense of beauty, creativity and a scientific mind.

Secondly, with the traits of the curriculum of courses in each category, it was found that the category of clothing & textiles courses belongs to colleges of human ecology the most, and in terms of major subjects, the relative importance of clothing science seemed high compared to other school categories while the category of fashion design courses belongs to colleges of art, modeling or design the most, and in terms of major subjects,

---

Corresponding author: Rha, Soo-Im, Tel.+82-41-550-5203, Fax.+82-41-550-5206  
E-mail: sina@smu.ac.kr

the scope of dress design appeared the widest, and finally the category of fashion industry courses belongs to colleges of natural science the most,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marketing seemed quite high. Moreover, with the result mentioned earlier, It was found that the names of departments and majors of fashion-related courses are differentiated, depending on what kind of college they belong to, and their curriculum have been differentiated to some degree accordingly.

Thirdly, as shown above, Korean universities have attempted to make a lot of changes in the curriculum of fashion-related courses according to changes of the age, compared to what they did in the past, but they have still seemed to lack many things for the cultivation of talents fit for their educational purposes. Through the result from investigating both the changes of the current age and the directions in developing the curriculum, the study came to conclusion that each university in Korea should develop the major curriculum of fashion-related courses that are more sophisticated and intensive fit for its department name and educational purposes.

**Key Words :** Major Curriculum(전공교과과정), category of clothing & textiles(의류학과군), category of fashion design(패션디자인학과군), category of fashion industry (패션산업학과군)

## I. 서 론

섬유패션산업의 국가경쟁력은 의류학의 창의적 교육에 의한 인재육성에 달려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패션교육을 받고 매년 배출되는 인원은 약 2만 명으로 이중에서도 2007년도 입시자료<sup>1)</sup>에 의하면 4년제 대학은 111개 학과에 달하며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여 공급과잉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패션관련 교육이 지역과 대학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유사한 커리큘럼으로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보편적이며 전문화되지 못한 교육을 행함으로써 철저한 전공 심화교육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가운데 대학 졸업자와 이들을 받아들이는 산업체에서는 전공 교육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글로벌 시대의 무한경쟁시대, 인터넷을 통한 세계를 하나로 묶는 정보화 시대, 생활·문화 중심의 소비자 라이프스타일변화, 디자인문화산업을 요구하는 감성시대 및 경기침체에 따른 취업난등으로 한국의 섬유·패션산업을 둘러싼 환경<sup>2)</sup>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에 의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간의 경쟁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급속한 내·외적 환경변화

를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의 패션이 21세기 세계시장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프로의 정신과 감각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을 육성하는 교육제도 및 내용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변화되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나라 패션관련 학과의 교육내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sup>3)</sup>. 이러한 선행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각 대학은 학과의 특성화와 차별화 정책을 대학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학과 교과과정에 있어서는 과감한 변화를 도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후 10년간 또한 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많이 변화하여 왔으므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학교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패션관련학과의 교과과정을 검토하여 봄으로써 우리나라 패션관련학과들의 교과과정의 특성 및 변화에 대해서 고찰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관련학과의 교육목표에 사용된 핵심용어를 분석한다.

둘째, 패션관련학과를 군별로 구분하여 특성을 살펴보고 교과목 구성비율을 분석한다.

셋째, 바람직한 교과과정의 방향을 탐색한다.

## II.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국내 패션관련학과의 교과과정을 대상으로 교과목구성의 특성을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패션관련학과의 교과과정 현황 분석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의 통계사이트<sup>4)</sup> <개별 학과 찾기 서비스>에서 '의상, 의류, 패션'으로 검색하여 그 중에서 4년제 대학의 패션관련학과 83개 대학이 검색되었다. 이중 학과명이 패션디자인정보학과, 패션디자인섬유공학과, 패션스타일리스트과, 공연의상학과, 패션뷰티학과 등을 제외한 62개 대학 65개 전공을 선정하였다. 65개 전공 중 학과나 전공명이 의류학과, 의류환경학과, 의류패션학과를 의류학과군, 의상디자인, 패션디자인, 의상학과, 의류디자인전공을 패션디자인학과군, 그리고 의류패션산업전공,

패션산업학과, 의류상품학과, 패션디자인산업전공을 패션산업학과군으로 분류하여 의류학과군 24개, 패션디자인학과군 34개, 패션산업학과군 7개교를 분석하였다.

각 대학의 교과과정 실태분석은 대학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교육목표 및 교과과정표의 교육내용을 참고로 하여 분석하였다. 교과목의 세부전공 분류는 선행연구에 나타난 분류기준을 참고로 하여 연구자들이 예비조사와 토의를 거쳐 조정하였다.<표 1>

결정된 교과과정의 분석유목을 기준으로 의류학과군, 패션디자인학과군, 패션산업학과군으로 나누어 교과목을 빈도분석(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SPSS 12.0(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Chicago, Illinois, USA)를 이용하였고, 각 분석의 유의수준은  $p<.05$ 로 하였다.

<표 1> 패션관련학과의 교과목 분류

교과과정 분류		세부분류		
1	의류·섬유과학	피복재료, 피복관리 등 피복과학, 소재과학과목		
2	의복구성 및 설계	인체·체형 관련과목 패턴설계 봉제 특수복: 남성복, 드레스, 장애인복, 기능복, 패턴CAD		
3	디자인	기초과목: 디자인이론, 색채학, 디자인&조형기초과목 전공심화: 워크숍, 컬렉션분석, 포트폴리오 전공연계	소재디자인: 염색, 공예, 소재디자인 응용디자인: 의상디자인외의 예술, 창작디자인관련과목, 패션연출, 패션코디네이션 CAD: 디자인캐드	
4	일러스트레이션	소묘, 인체드로잉, 모델드로잉, 패션일러스트		
5	패션마케팅	마케팅관련 분야: 의상사회심리 및 기초마케팅이론, 프로모션 등 비즈니스, 창업관련 분야: 마천다이징관련 분야: 디스플레이, VMD, 의류제품평가, 패션제품생산공정, 기획관련과목		
6	복식·문화사	복식사, 문화사, 미학관련과목		
7	기타	현장실습, 사례조사·프로젝트, 필드스터디, 산학연계프로그램		

### III. 이론적 배경

#### 1. 패션산업 환경의 변화

오늘날 패션산업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 놓여있다. 디지털 중심적이며 상호작용적이고 개별적 수평적인 특성을 지닌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고 새로운 라이프사이클이 나타나고 있으며, 삶의 질을 추구하는 가치지향 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욕구가 다변화되는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 정보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힘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은 테크놀러지가 지배하던 산업사회와는 달리 '인간'과 '문화'에 대한 매니지먼트(management)에 집중된 관심을 보인다. 이러한 질(quality) 중심의 21세기는 인간과 문화가 중심이 된 삶의 질이 인생의 가치척도가 되고, 곧 디자인이 일상생활 용어가 되는 '디자인 시대' 도래를 의미한다. 이렇게 지식기반 산업으로서의 디자인 산업은 미래 지향 산업으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Digital, DNA, Design은 신 3D 산업으로 평가되어 각광을 받고 있다.

패션비지니스의 환경은 닫힌 사회(closed society)에서 열린 사회(open society)로 변화하면서 정부 주도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One World One Market이 가속화되면서 내수와 수출시장의 구분이 모호해져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만이 살길이 되어 가고 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발전전략<sup>5)</sup>은 2010년 세계 3위의 첨단 섬유패션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섬유패션 산업을 「기술+패션+브랜드」가 접목된 선진국형 산업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기술 혁신으로 첨단산업화 및 고부가가치화, 패션디자인 산업의 선진화 및 세계화, 지역특성에 맞는 분야별 섬유산업 클러스터 구축, 섬유교역 자유화에 대응, 섬유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패션산업은 더욱 더 지식산업화, 문화산업화 되는 양상의 변화를 보이며 제조기능 중심에서 서비스 기능 중심으로 이해되며 상품 기획력과 디자인력, 정보분석력, 홍보마케팅력, 유통서비스에 대한 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sup>6)</sup>.

현재 디자인,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 능력 등 패션 · 디자인 기술인력은 선진국의 60% 수준이며 종 · 저가품과 차별화가 안돼 중국 등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패션디자인 등의 인력양성을 통한 중국 및 후발 개도국 제품과의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sup>7)</sup>. 이와 같이 패션산업의 빠른 변화에 발 맞추어 대학의 패션 교육도 과거의 교육 패턴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새로운 교육 모델을 개발하지 않으면 학과의 존립이 위태로운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섬유 · 패션산업의 국가경쟁력은 의류학의 창의적 교육에 의한 인재육성에 기대를 해야 한다. 그러나 디자인대학에서도 디자인이론에 치중하거나 디자인기능자 양성을 위한 단기성과에 집중하고 있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해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산업체와 교육계간의 대학교육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고리가 커서 대학교육이 산업의 요구에 재빠르게 대응하지도 못한다는 비판도 많다<sup>8)</sup>.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섬유패션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인재육성에 대한 기대 수준이 향상됨으로써 산업계와 학계를 연결시키며 양자를 만족시키는 패션전문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서구 중심이었던 패션산업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이 부상하면서 패션시장이 평창하고, 중국 등 패션수요 인구의 증가 및 구매력의 증가로 세계섬유 생산과 소비의 40%를 차지하는 동아시아 지역을 연계하는 패션비지니스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제 패션디자인과 패션비지니스는 개인의 감각과 취향, 손재주에 의존하던 틀에서 벗어나 광대한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한 수용자, 소비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마케팅을 위해 인터내셔널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적인 비즈니스의 발달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정보사회의 전문인으로 생존하려면 전문적인 전공 지식 이외에 멀티미디어의 순기능과 인터넷의 순기능을 관리할 수 있는 신 테크놀러지의 정복과 어학 능력을 겸비함으로써 지구촌 각 지역의 생활과 풍습을 이해하고 각 지역의 소비자들의 의복착용 및 구매 동기가 어떠하며 그들이 추구하는 의복추구혜택 요인, 의복선택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잠재 소비자를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생산 및 서비스 혁신에 따른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한 파트너쉽(partnership)유지능력이 있는 인재가 요청 될 것이다<sup>9)</sup>.

이와 같이 향후의 패션교육은 전문화, 세분화되어 각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노하우를 습득하여 전문인력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의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2. 패션관련학과 교과과정의 연구동향

이와 같이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부응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계에서는 기존의 교과과정을 변화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과 관심이 꾸준히 기울여지고 있다.

이러한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로 김희남<sup>10)</sup>은 부산 지역의 4년제 대학의 교과과정을 분석한 결과, 국내 패션교육의 문제점으로 대부분 유사한 교과과정으로 전문화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전공심화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었으며 여기에는 탄력적인 교과과정의 운영을 위한 대학행정상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김효은<sup>11)</sup>은 전문대학 패션디자인과의 교육 과정을 패션전공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전공심화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희망분야는 패션디자인, 패션마케팅, 패턴메이킹의 순서로 나타나 디자인과 마케팅분야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학과 내에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교육과정과 전공영역별 코스를 마련하여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패션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김소현 등은<sup>12)</sup> 우리나라 의상관련학과의 교육과정 분석결과 4년제 대학은 전문대학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피복과학이나 복식사회과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고 의복구성학 영역이 차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혜영<sup>13)</sup>은 의상 및 의류학과 개설과목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관한 조사에서 1998년 현재 개설된 과목중 학생들은 의복구성과 복식디자인 교과목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는 교과목은 패션마케팅과 복식디자인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의복구성과 복식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의류제조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미래에는 패션마케팅과 복식디자인 등을 중심으로 한 다차원적인 의류산업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므로 미래에 강화되어야 하는 교과목은 패션마케팅 분야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해영, 이진희<sup>14)</sup>는 의복구성설계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의류관련학과 교과과정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의류관련학과의 명칭은 가정대학소속의 의류학과가 가장 많았으며 의복구성분야는 의복구성의 기초 원리, 인체계측 및 인간공학, 원형, 서양의복, 한복, 재단, 특수복, 봉제과학으로 분류하고 있어 1990년 초기의 연구결과<sup>15)</sup>와 비슷하게 나타나 시대가 변화 하여도 교과과정에는 발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변화에 따른 패션관련학과의 교과목 변화에 대한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규희 등<sup>16)</sup>은 의류산업체의 경영인과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패션관련학과의 교과과정에 대하여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점, 신기술의 적응능력이 떨어지는 점, 전문 교수 요원의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간문자<sup>17)</sup>는 의상디자인학과의 교육은 마케팅과 관련하여 상품기획과 소비자분석의 능력을 키워야 하고, 의복구성은 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CAD·CAM 시스템에 대한 교육, 의상디자인 분야에서는 외국인의 감성을 읽고 충족시킬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했다.

## IV. 연구결과 및 고찰

### 1. 패션관련학과의 교육목표

많은 대학에서 패션교육은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있는 패션전문인을 양성하는데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다.

이명옥 등<sup>18)</sup>도 글로벌 인재의 조건을 1.최고의 리더쉽 소유, 2.외국어 능력,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글로벌마인드 등의 삼위일체형 인재, 3.통합적 능력 소유, 4.진취적이고 목표의식의 투철 등으로 제시하

고 있다.

교과과정을 구성하려면 이러한 대학의 패션교육철학과 패션교육목표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바 많은 대학의 패션교육목표에 나타난 핵심 용어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의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패션관련대학의 교육목표에 사용된 핵심용어의 공통점은 앞 장에서 제시된 시대의 요구와 이에 따른 바람직한 능력과 역할을 나타내고 있는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알기 위해 학과군 별로 분류하여 교과과정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한다.

## 2. 교과과정의 현황분석

### 1) 소속 계열 및 명칭분석

조사된 전국 4년제 패션관련대학을 계열별로 분류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생활과학계 20개교(31%), 자연과학계 12개교(18%), 인문사회계 3개교(4.6%), 예술계 26개교(41.5%), 섬유·의류·패션뷰티 4개교(6.1%)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 바, 1999년 이해영<sup>19)</sup>의 연구에서 현재의 생활과학대에 해당하는 가정대소속이 가장 많았으나 과거에 비해 패션관련 전공은 예술계 소속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제기된 섬유패션 산업의 국가경쟁력은 의류학의 창의적 교육에 의한 인재육성에 기대를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과 부합되어 의류과학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예술, 디자인에 기초를 두어 교육하고자 하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

음을 나타낸다. 패션관련대학의 교육목표에 사용된 핵심용어 중에서 미적 능력, 응용력, 창의력, 미적감각, 창조적 능동적 인재, 실무중심, 디자인교육, 창의적 감각 등에 강조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소속계열이 디자인, 예술계열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패션관련 학과들은 예술계열내에서도 디자인대학(학부), 예술대학, 조형대학 등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으나 이 외에도 디자인조형, 예술디자인, 조형예술 등의 명칭으로 변화되고 있었고 예, 체능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 다수 있어 패션관련학과의 소속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9년 이해영의 연구에서는 의류관련학과의 명칭이 의상학과, 의상디자인학과, 의생활(과)학과, 의류학과, 의류직물학과의 5개로 분류되었으나 10년이 지난 2008년 현재는 매우 다양하게 변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산업”, “상품”의 용어를 넣은 학교도 있어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학과의 명칭도 변하고 있었으며 패션산업학과군은 분류된 7개교 중 4개교가 자연과학대학 소속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해영의 선행 연구에서는 의류학과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sup>20)</sup> 본 연구에서는 생활과학계의 경우 의류학전공의 명칭이 12개교, 의상학이 3개교로 가장 많았고 자연과학계의 경우도 의류학전공이 6개교, 의상전공이 1개교, 패션(의류)산업학과의 명칭도 3개교 있었다. 예술계의 경우는 의류학과 2개교, 의상(패션)디자인의 명칭이 22개교로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처럼 소속대학에 따라 학과, 전공명칭이 차별화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교과과정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 패션관련학과의 교육목표 핵심용어

전문인 양성, 성실한 인격, 교양인 육성, 지식과 기술을 겸비, 인간공학적, 위생적, 미적능력, 패션산업, 소비자행동, 세계화(글로벌), 미래지향적, 패션산업 리더, 21세기, 고급화, 개성화, 개방적인 사고방식, 응용력, 창의력(창조적 사고), 미적 감각, 과학적인 분석 능력, 통합적인 지식, 전문화, 특성화, 창조적 능동적 인재, 실무중심, 국제적 감각, 패션디자인, 정보화, 실무적 경쟁력, 통합적 사고, 시장분석능력, 실용적 지식습득, 문화인, 정보화 시대, 비즈니스감각, 실용지향, 지식화, 패션산업의 리더, 산업현장, 실기와 이론의 조화
---

&lt;표 3&gt; 패션관련학과의 소속계열 및 명칭

n(%)

계열	단과대학 및 학부명	학 과 명	대학교명	학 교 수
생활과학계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	의류학과(전공)	서울대, 성신여대, 한양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중앙대안성캠, 울산대, 가톨릭대, 숙명여대, 목포대	11
		의류환경학과	연세대	1
		의류디자인전공	인하대	1
		패션디자인전공	동아대, 동의대	2
		의상학전공	성균관대, 경원대, 경희대	3
		패션디자인·산업전공	원광대	1
	생활환경대학	의류학과	부산대	1
계				20(31)
자연과학계	자연과학대학	의류학전공	상명대서울캠(생활환경학부), 경상대(생활과학부), 서울여대, 창원대, 제주대	5
		의류상품학과	공주대	1
		패션의류학과	경남대	1
		패션산업학과	인천대	1
	자연대학	패션산업학과	대구카톨릭대	1
	이과대학	의류학과	한남대	1
		의상학과	경성대	1
계				12(18)
인문사회계	인문사회과학대학	패션디자인학과	부경대(디자인학부)	1
	문화관광대학	의류패션학과	배재대	1
		의상디자인학과	동신대	1
계				3(4.6)
예술계	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	의상디자인전공	동덕여대, 상명대천안캠	2
		패션디자인전공	동서대, 동명대, 명지대	3
		의상디자인학과	건국대충주캠	1
		조형대학	의상디자인학과	국민대
		조형환경학부	의류학과	서원대
	예술대학	패션디자인전공	이화여대(디자인학부), 서경대, 청주대(디자인학부), 한성대(의생활학부)	4
		의상디자인전공	덕성여대(예술학부), 호남대, 한서대(예술학부)	3
		의류패션산업전공	한성대(의생활학부)	1
		의류학과	이화여대	1
	예술디자인대학	의류디자인학과	경희대(디자인학부)	1
	조형예술대학	패션디자인학과	대구대, 순천대	2
	예술체육대학, 예체능대학, 예체능학부	패션디자인학과	세종대, 세명대, 서남대	3
		의상디자인학과	광주대,	1
		패션학과	호서대	1
	예술문화대학	의상디자인	건국대(디자인학부)	1
계				26(41.5)
섬유의류 패션 뷰티	패션대학	패션디자인과 패션마케팅학과	계명대	2
	섬유패션학부	의류패션전공	영남대	1
	IT·디자인대학	패션디자인산업전공	신라대(패션산업학부)	1
계				4(6.1)

## 2) 패션관련학과의 학과군 별 교과과정 분석

조사된 65개 학과를 의류학과군, 패션디자인학과군, 패션산업학과군으로 분류하여 각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과과정표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림 1>은 패션관련학과의 학과군 별로 교과과정의 각 영역별 개설교과목의 구성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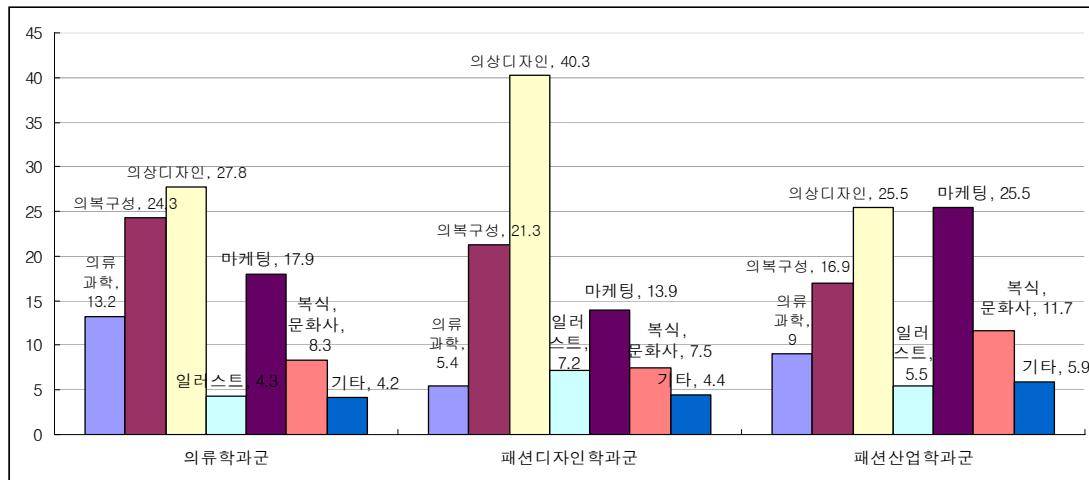
의류학과군은 의상디자인(27.8%), 의복구성(24.3%), 의류과학(13.2%), 마케팅(17.9%)의 순으로 의상디자인과 의복구성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두 학과군에 비해 의류과학, 마케팅분야의 비율도 크게 나타나 교과목의 구성이 한 분야에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의류학과군은 대부분이 생활과학계와 자연과학계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계열의 특성상 실기보다는 이론중심의 교과과정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패션디자인학과군은 의상디자인(40.3%), 의복구성(21.3%), 마케팅(13.9%)의 순으로 나타나 다른 학과군과 비교할 때 의상디자인영역이 다른 학과군보다 높게 나타났고 의류과학이 5.4%로 매우 적게 나타났다. 이는 ‘디자인’이라는 명칭으로 특성화 된 경우 과학 분야의 이론보다는 디자인실기 분

야에 치중해서 교육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패션산업학과군은 의상디자인(25.5%), 마케팅(25.5%) 의복구성(16.9%), 의류과학(9.0%)의 순으로 나타난 바, 역시 학과 명칭에 ‘산업’이라는 명칭으로 특성화한 경우는 교과목구성에서 마케팅분야가 다른 학과군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디자인분야도 25.5%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특이하게 복식, 문화사분야가 다른 학과군보다 높은 11.7%로 나타났다. 이는 요즘 패션산업의 세계화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교과과정이라 하겠다.

또한 분류된 3개의 학과군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의상디자인과 의복구성의 과목에 대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과목들은 의복을 디자인하고 완제품으로 생산해 내는데 기본이 되는 과목으로서 이는 국내 패션관련학과의 교과과정이 현실적으로 제조업중심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각 학과군 별로 교과과정을 분석해 본 결과 작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던 바, 의류학과군에서는 의류과학이, 패션디자인학과군에서는 마케팅이, 패션산업학과군에서는 복식·문화사과목이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림 1> 패션관련학과의 학과군 별 교과과정 구성분포

이러한 분석 결과를 볼 때 패션관련학과에서는 모두 의상디자인과 의복구성영역에 동등한 비율로 역할을 두어 교육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패션의 진출분야가 세분화된다 하더라도 디자인과 의복구성 교과목의 비중을 축소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과의 명칭에 따라서 교과과정을 차별화하고 있어 학과의 명칭이 가진 특성과 부합되는 긍정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패션교육이 전문화,

세분화되기 위해서는 학과군별로 교과목의 내용 및 구성에 있어 더 확실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학과군 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과목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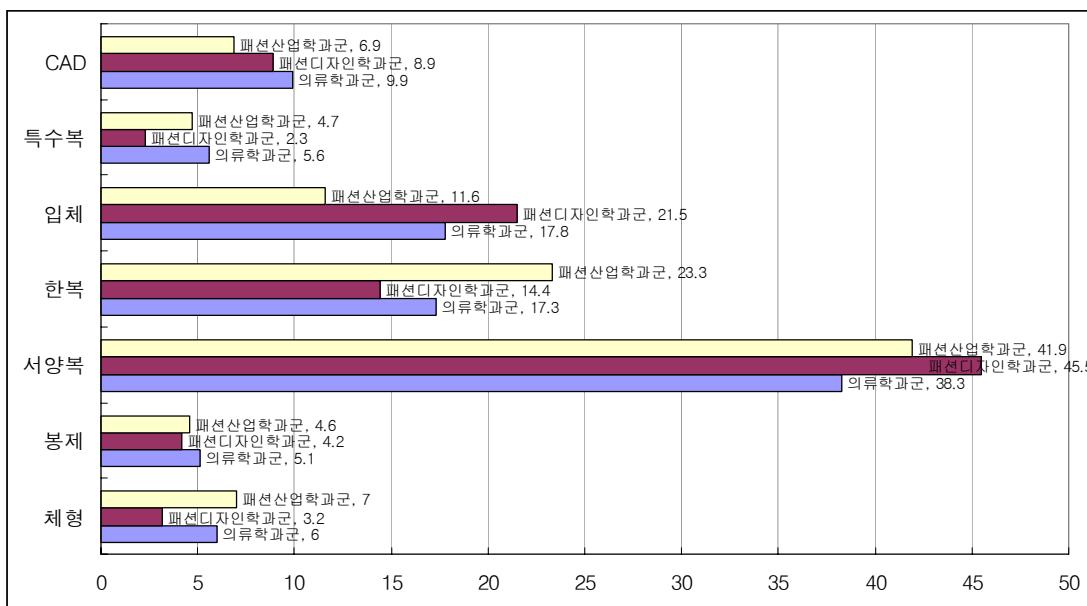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패션부분의 경우 패션디자인학과가 82.1%, 의류학과군이 75%, 패션산업학과군이 74%의 순으로 나타났고, CAD과목은 8-

<표 4> 의복구성분야의 교과목

n(%)

학과군	교과목	체형	봉제	패 텐		특수복	CAD	Total			
				평 면							
				서양복	한 복						
의류학과군	13(6)	11(5.1)		117(56.7 )		38(17.8)	12(5.6)	21(9.9) 212(100)			
				82(38.3)	37(17.3)						
패션디자인 학과군	8(3.2)	11(4.2)		154(59.9)		55(21.5)	6(2.3)	23(8.9) 257(100)			
				117(45.5 )	37(14.4)						
패션산업 학과군	3(7)	2(4.6)		28(65.2)		5(11.6)	2(4.7)	3(6.9) 43(100)			
				18(41.9)	10(23.3)						

\* Pearson chi-square=7.722(p-value=0.459)



<그림 2> 의복구성분야의 교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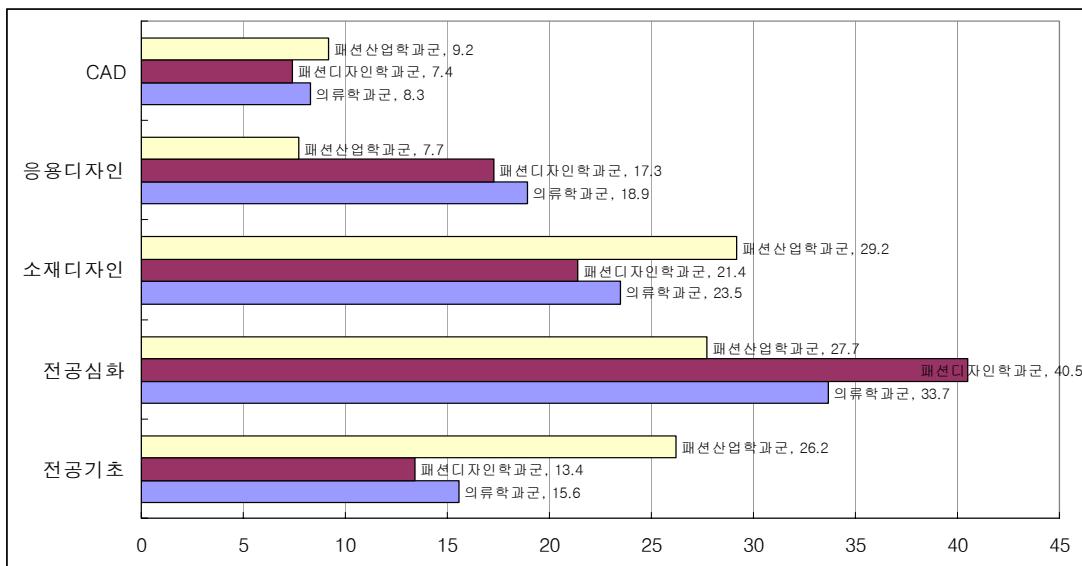
9% 내외로 나타났다. 패션디자인학과군은 체형, 봉제보다는 패턴에 중점을 두었으며 다른 학과군에 비하여 패턴과목 중에서도 입체패턴에 더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의류학과군은 다른 학과군에 비해 특수복, CAD 패턴, 봉제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패션산업학과군은 자연과학대학 소속이 많았는 바, 체형교과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으나 빈도분석에 따른 p-value가 0.459로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의상디자인분야의 교과목 구성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의류학과군과 패션디자인학과군은 교과목의 구성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만 의상디자인분야의 교과목에 있어, 패션디자인학과군은 다른 두 학과군보다 디자인워크숍, 컬렉션분석, 포트폴리오 등의 전공심화교과목의 비율은 다소 높았고 디자인이론, 색채학, 디자인, 조형기초 등의 전공기초교과목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즉 패션디자인학과군의 경우 디자인의 교과목을 더 많

&lt;표 5&gt; 의상디자인 분야의 교과목

학과군	교과목	전공기초	전공심화	전공연계			Total	
				소재디자인	응용디자인	CAD		
의류학과군	38(15.6 )	82(33.7 )	123( 50.6 )			243(100)		
			57(23.5 )	46(18.9 )	20(8.2 )			
패션디자인학과군	65(13.4 )	197(40.5 )	224(46.1)			486(100 )		
			104(21.4 )	84(17.3 )	36(7.4 )			
패션산업학과군	17(26.2 )	18(27.7 )	30(46.1)			65(100 )		
			19(29.2 )	5(7.7 )	6(9.2 )			

\* Pearson chi-square=10.767(p-value=0.029)



&lt;그림 3&gt; 의상디자인 분야의 교과목

이 개설하여 고급화하고 있었다. 패션산업학과군은 기초디자인과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분석한 결과  $p\text{-value}$ 는 0.029로써 유의수준 0.05보다 낮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전공연계과목에서는 소재디자인분야에 있어 다른 두 학과군에 비해 패션산업학과군이 29.2%로 교과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의류산업학과는 학과의 특성상 디자인보다는 소재부분에 중점을 두어 교육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공연계과목중에서도 응용디자인분야는 다른 두 전공에 비해 7.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의상디자인외의 예술, 창작디자인 관련과목, 패션연출, 패션코디네이션 등 응용디자인과목의 내용이 예술, 창작디자인, 액세서리디자인 등의 실기중심의 과목으로 의류산업학과라는 명칭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 것으로 생각된다. 디자인 CAD교과목은 세 학과군 모두 7~9% 정도로 나타났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마케팅 기본교과목은 세 학과군 모두 40%정도를 배분하고 있었고 패션산

업학과군은 패션비즈니스, 창업관련 교과목의 비율이 23.1%로 다른 학과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p\text{-value} < 0.000$ ). 머천다이징과목은 오히려 의류학과군과 패션디자인학과군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시대적으로 국내 의류산업은 유통개방과 더불어 판매 유통에 이르는 다차원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맞고 있으므로 이러한 산업체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기획 및 유통영역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고 업체에서도 이러한 영역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마케팅 기본교과목에 나타나는 현상은 패션수요 인구의 증가 및 구매력의 증가로 패션비즈니스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비즈니스의 발달 능력이 요구되고 있는 현재의 시장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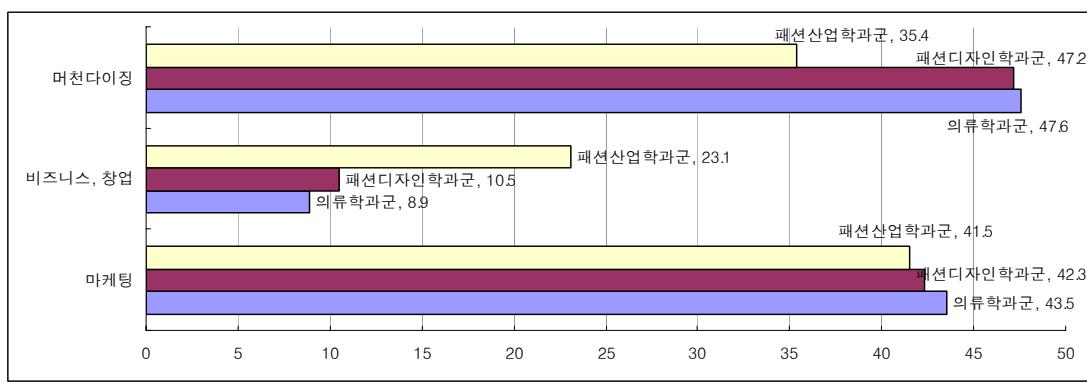
위의 연구결과 학과명칭에 의해 분류하여 교과목의 구성적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 학과군의 명칭에 따라서 교과과정을 차별화하고 있어 학과의 명칭이

<표 6> 마케팅 분야의 교과목

n(%)

학과군	마케팅			Total
	마케팅	비즈니스, 창업	머천다이징	
의류학과군	64(43.5)	13(8.9)	70(47.6)	147(100)
패션디자인학과군	69(42.3)	17(10.5)	77(47.2)	163(100)
패션산업학과군	27(41.5)	15(23.1)	23(35.4)	65(100)

\* Pearson chi-square=51.792( $p\text{-value}=0.000$ )



<그림 4> 마케팅 분야의 교과목

가진 특성과 부합되는 긍정할 만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2001년 김희남의 연구<sup>21)</sup>에서 우리나라 패션디자인 관련학과의 경우 모든 대학들이 유사한 교육カリ큘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과과정 운영의 변별력을 찾을 수 없고 차별화되지 않고 있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매우 고무적인 변화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패션교육이 전문화, 세분화되기 위해서는 학과군별로 교과목의 내용 및 구성에 있어 더 확실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V. 결 론

우리나라 패션산업의 인력 양성은 수적인 면에서는 충분하나 질적인 면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양성을 위해서 교과과정 개선에 대한 변화가 계속 시도되어 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패션관련학과의 교과과정을 검토하여 봄으로써 우리나라 패션관련학과들의 교과과정의 특성 및 변화에 대해서 고찰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패션관련학과의 교육목적에 사용된 핵심용어의 공통점을 분석한 결과, 패션관련학과에서 목표로 하는 인재는 미적 감각, 창의성과 과학적인 능력을 지니고 다학제적 종합능력과 전문적 실무능력, 정보분석력, 기획력을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지도자, 국제적 커뮤니케이션능력을 갖추어 세계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요약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패션관련학과 명칭은 크게 생활과학계열과 예술·디자인·조형계열의 두개의 계열이 중심이 되었고 학과명에서는 “디자인”용어가 포함된 명칭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공의 명칭에서 우리나라의 패션산업이 제조에서 디자인중심의 산업으로 변화되어 왔음을 반영하고 있었다. 또한 과거에는 없었던 의류(패션)상품, 의류산업등의 학과명칭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었다. 이는 특히 글로벌 시대를 대비한 국제적 감각을 지니고

디자인 분야뿐만 아니라 유통과 마케팅에 대한 감각을 지닌 우수한 연구 인력을 육성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으로 볼 수 있다.

각 학과군별 교과과정의 특성을 살펴보면 의류학과군은 생활과학대학소속이 가장 많았고 교과목에서는 의류과학의 비중이 다른 학과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패션디자인학과군은 예술, 조형, 디자인대학 소속이 많았다. 교과목에서는 의상디자인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패션산업학과군은 자연과학대학 소속이 많았고 마케팅과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소속대학에 따라 학과, 전공명칭이 차별화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교과과정도 다소 차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 대학의 패션관련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많은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나 교육목표에 맞는 인재육성을 위해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대의 변화와 교과과정의 발전 방향을 탐색한 결과 대학별로 학과명칭 및 교육목표에 알맞은 세분화되고 심도 있는 전공교과과정을 더욱 개발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소속계열에 맞추어 교과과정이 좀 더 세분화되도록 개선, 보완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진로방향에 맞추어 전공심화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공코스제의 도입 등으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력양성에 힘써야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 패션관련학과는 21세기의 초반 10년 동안 다양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변화를 모색하였으나 환경변화의 속도만큼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패션 관련학과의 교과과정은 아직도 추구하는 교육목표에 맞게 확실하게 차별화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과 학생들로부터 취업과 교과과정의 연계성에 대해 높은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다. 더욱 발전하고 특성화되는 대학교육과정 안에서 교과과정도 새로운 방법과 기술이 끊임없이 시도되어 창의적이고 전문적 교과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 어떤 교과목으로 어떤 교과과정을 선택하여 교육하느냐 하는 것은 교육을 받은 예비디자이

너가 디자인 현장에서 활동할 때 그 디자이너의 자질과 역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육의 방향에 따라 그 디자이너의 성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서는 기업과 시장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기업과 교류하고 학교와 기업이 수요하는 인재의 지식구조의 결합점을 탐색해야하며 기업의 환영을 받는 인재를 배양해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교육과정의 현황을 파악하여 패션디자인교육이 사회의 요구 그리고 미래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향후 교육과정의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후속연구에서는 학과별로 각 영역의 교과과정에 대한 질적 분석을 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조규화(2007). "의류학 교육 60년, 새로운 패러다임." *2007년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춘계학술대회 proceeding*, p.16.
- 2) Ibid., pp.14~21.
- 3) 김효은(1999), "전문대학 패션디자인과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복식*, 46, pp.89~106.
- 김혜영(2000), "의상 및 의류학과 개설과목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관한 조사." *복식* 50(2), pp.81~95.
- 김희남(2001), "패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공 심화교육프로그램 개발." *부산경상대학논문지*, pp.385~412.
- 나수임(1999), "우리나라 의상디자인 관련학과의 패턴디자인 교과과정." *디자인연구*, 7, pp.2~15.
- 도규희 외(1994). "복식산업발전을 위한 패션전문 교육에 관한 연구." *복식*, 23, pp.225~248.
- 이해영 · 이진희(1999). "우리나라 의류관련학과 대학교과과정에 관한 조사연구." *대전대학논문집* 10(1), pp.197~204.
- 4) "교육인적자원부". 자료검색일. 2008.03.05. 자료출처 <http://std.kedi.re.kr>
- 5) "섬유패션산업의 발전전략"(2006),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자료검색일. 2008.03.15. 자료출처 <http://www.kofoti.or.kr>
- 6) 김희남, op.cit., p.388.
- 7) 한국섬유산업연합회, op.cit.
- 8) 김태년(2005), "21C혁신코드, 디자인." *한국디자인체총연합회창립10주년기념디자인포럼*, p.36
- 9) 김희남, op.cit., p.392.
- 10) Ibid. pp.385~412.
- 11) 김효은, op.cit., pp.90~106.
- 12) 김소현 외(1990), "전문대학 의상과의 교육과정 변천과 산학협동에 따른 방향 및 전망." *배화논집*, pp.71~141.
- 13) 김혜영, op.cit., pp.82~85.
- 14) 이해영 · 이진희, op.cit., pp.197~204.
- 15) Ibid. p.203.
- 16) 도규희 외, op.cit., pp.225~248.
- 17) 간문자(1997), "국내패션·유통산업의 현황과 의상디자인학과의 교육에 대한 연구." *호남대학논문집*, 18(4), pp.993~1004.
- 18) 이명옥(2007). "글로벌 패션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동전략\_패션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2007년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춘계학술대회 proceeding*, pp.51~59.
- 19) 이해영 · 이진희, op.cit., pp.197~204.
- 20) Ibid., p.203.
- 21) 김희남, op.cit., p.394.

---

접수일(2008년 5월 13일)

수정일(1차 : 2008년 6월 10일, 2차 : 7월 22일)

제재확정일(2008년 7월 28일)